

# 사랑의 손길, 결코 놓칠 수 없어

## 오랜 세무사 생활하며 나눔 봉사 실천

전주에서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최형주 세무사(66)는 국세청에서 사전 검출하는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아름다운 납세자 상 후보로 결정됐다.

그는 또 지난 17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에게 수여하는 주는 '공로상'도 받았다. 그에게 인터뷰를 제안했던 국내 언론사 5일보는 그는 "내세워 자랑할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아름다운 납세자로 확정발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은 진정한 국세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에 5일보는 "좋은 일을 굳이 숨기는 것만으로 미덕이 될 수 없다" 후보로는 선정됐지 않았으나 겨뚝 설득해 전화 인터뷰를 어렵사리 이끌어 냈다고 한다.

본보에서도 그에게 인터뷰 제안을 했으나 역시 그랬다. 마찬가지로 그의 인터뷰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천상 전직 국세 공무원이며 착하고 예의 바른 세무사였다.

본보는 설 명절을 맞아 최형주 세무사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박영근 전주매일 전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Q.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 국세청에서 시상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10여년간 파킨슨씨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년 전 악화로 인한 내구성 심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수술(뇌심부 자극 시스템 이식수술 verice)을 받았어요. 처음 아산병원에 도착하여 투약을 계속해오다가 수술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동안 어려운 환자들을 보아 오면서 병마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사 생활 20년을 마감하는 해에는 사회봉사 사업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고향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볼 수 있도록 매년 '소년 한국일보'를 보내 자랑하는 고향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고액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면서 주간지인 '주간 인물 300'로 특집 발행분에서 표지인물로 선정돼 일약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뒤이어 도내 모 유명 일간지에 기사화 되고 KBS1 TV 뉴스에 방영되기도 했죠.

그리고 '스포츠타운'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에서 사회공헌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 되었고, 소년한국일보로부터 보내온 감사장 및 불우하고 힘없는 이웃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무료세무상담을 해온 공적 등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로 뽑힌 것 같습니다.

Q. 한국 세무사회 회장이 주는 공로상 배경은 무엇입니까?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세무사 제도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회원에게 공로상을 시상하고 있어요.

올해에는 지난해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내부 포상 기준 및 포상 규정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지역세무사회에서는 제가 선정된 것입니다.

Q. 전북 도내 세무사로서 최초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셨습니다. 회원이 되신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너소사이어티는 어떤 봉사체제인지 말씀해주신다면?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와 지원을 통해 더 밝은 내일을 연 사회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아너소사이어티)의 모임으로서 1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개인에게 내부 심사 규정에 의해

“ 파킨슨씨병 투병 중에도 꾸준히 불우이웃 돕기 나서

납세자의 날 맞아 국세청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 선정 등 소식도 전해들어

국회 세무사법 개정에도 앞장서 공로상도 받아

세법 몰라 억울한 일 당하는 납세자 위해 무료상담에 앞장서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단체입니다. 전북 세무사 200여명 중 최초의 회원이 되었어요.

Q. 2011년 전주지역 세무사회장을 지내시고 전주세무사 납세자 권익 존중 위원장으로 위촉돼 납세자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면?

-전주 지역 세무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한국세무사회 회장님 및 타지역 세무사 회장님들과 같이 상경하여 관계기관 및 국회에 찾아가 법사위 국회의원들께 세무사의 위치 및 현실을 개진하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하는 제도가 개선되도록 세무사 일원의 한사람으로서 노력했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세무사들 간에 수입업체 이전 문제로 소원해진 회원들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 회장 재직 중에 한반도 불미스러운 징계 등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전주세무사 납세자 권익 보호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납세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세법의 원칙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하였고 세무당국의 입장에서 최대한 납세자가 이해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세법을 몰라서 이의신청 기한을 넘긴 납세자의 고충과 조사기한의 연기에 대한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는 일을 내일처럼 도와주었어요.

Q. 독립운동가 엄규영 선생의 외손자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외조부님에게는 3남 8녀의 자손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녀로서 저는 외가집의 장손

“ 독립운동가 엄규영 선생이 저의 외조부님이십니다. 민족주의자로서 애국 애족하시며 평생을 조국을 위해 희생한 그분의 피가 저에게도 조금은 흐르는 것 같아요.

국세공무원 25년, 세무사 생활 20년을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살려 알게 모르게 불우이웃을 돌보는 나눔의 봉사활동을 나름대로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는 3월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세청에서 시상하는 '아름다운 납세자' 후보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어요. 지난해 11월에 세무사법 국회 통과를 위해 뒤에서 힘을 보탠 공로인 것 같습니다.

임인년 새해 좋은 일이 생김은 앞으로도 선행과 나눔의 생활을 더 열심히 행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지요. 외조부님은 당시 서울 배재고보에 재학중 학생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 생활을 하시면서 구타를 심하게 당하여 노년에는 투병생활을 하셨어요. 그후 밤을 잠으려면 밤의 소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일반 유학강에 올라 대학을 졸업하신 뒤 귀국해 후학들의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해방후에 부안군 출포면 출포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재직 하셨지요. 2019년도 3월 1일 국가로부터 '독립 유공자'(부안군에서는 1명) 추서 받으셨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울밀에선 봉선화를 즐겨 들곤 하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출포중학교장(葬)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 장면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출포중학교 학생들이 교문에서부터 양옆으로 줄을 이어서서 출포면 사무소까지 200여미터 가량 띠를 이으며 학생들이 불려진 '울밀에선 봉선화'를 지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선각자이며 애국자이셨지요.

투옥 생활 중 일본경찰로부터 구타 등으로 중병을 앓아 투병 생활을 수년간 하셨음에도 조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교육과 국방이 있어야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파님 8명중 4명이 배우자를 교육자로 선택 하였고, 아드님 3명 모두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생활 하셨어요. (장남 해병중령 예편, 2남 육군 대령 예편, 3남 육군 대령 예편)

Q. 국세공무원 25년, 세무사의 길 20년을 걸어오면서 부자도 살지 못했는데, 남을 위한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어디에서 배우셨는지요?

-저희 친가는 조부님이 7남 2녀를 두셨는데 아버님은 전주 사범을 나오시고 교편 생활을 하시면서 11명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 갔어요. 아버님의 친구분이 전북 위도에 사셨는데 그 친구분이 배를 타다 돌아가시자 그분의 옛된 딸을 데려다가 이름도 김형숙으로 작명하시고 자식 같이 키우셨습니다. '교사의 적은 월급임에도 어려운 가정 생활에서도 남을 위해 노력하셨던 생활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아니하시고 전북 부안군 우덕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중에 돌아 가셨습니다. 초등학교 출입구 및 주위에 차량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 담벼락 공사를 매일 매일 점검하며 노력하다가 고인이 되셨어요. '국가 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Q. 소신과 뜻을 이루고 싶은 계획은?

-자아 민족의 주장을 없애고 싶지는 않아요. 더불어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소신이면 소신이지요. 바라고 싶은 소망은 저희 처(妻)조부님(고향 출신 韓山은규선 선생)께서 다가오는 3월 1일에 '독립유공자'로 추서 되어서 고인(故人) 및 고인의 유족들에게 자부심과 독립운동을 하셨던 가문이라는 명예를 획득하는 일이지요.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는데 아마 이번 삼일절에 결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자기소개를 해주신다면?

-전 시골에서 태어나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김재훈 기자)

### ▶ 최형주 세무사 프로필

- 1975 전라고등학교 졸업
- 1977 국세공무원 공채시험 합격 이리세무사 초임발령
- 1980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4년 졸업(아간)
- 1980 육군입대
- 1982 육군민기제대, 김제세무서 복직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세무회계전공)
- 2001 제38회 세무사시험 합격
- 2001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박사과정 입학
- 2001 행정사무관 임용, 국세청 23년 근무 명예퇴직, 모범공무원 표창
- 2002 세무사개업, 제1회 경영지도사 시험 합격
- 2004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 2005 원광대학교 법과대학 세법강사 출강
- 2006 북전주세무서 이의신청 심의위원 광주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 사회복지법인 심동회 감사
- 2009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표창
- 2011 전주세무사회 회장
- 2013 전주세무서 납세자권익증진위원장